

한해가 저물지만 계속 핏기는 전쟁화약내

시론

반미동맹의 고지대

최근 일본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극우분열을 더욱 로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얼마전에 있는 립시국회에서는 일본수상은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하면 선인자들이 내외의 반발을 의식하여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헌법개정문제를 꺼리낌 없이 들고나왔다.

일본이라는 독사의 몸통아리에서 군국주의부활과 복수심, 재침야망이 꿈틀거리고있는것이다.

한때 일본은 세계앞에서 《평화국가》로 자처해왔다. 그러나 오는 일본을 《평화국가》로 믿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전쟁광기가 가득한 망동만을 한사코 끌어서 하고있기 때문이다.

도적은 감감한 밤만 꿈꾼다고 자나깨나 재침의 포성을 울릴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있다.

최근 일본이 그 무슨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가동한것은 또 하나의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독도령유권》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정세 및 일본군성노예배상관결문제를 비롯하여 남조선에 대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제재로 《교토》를 줄것을 목적으로 조작된 《독도보복팀》은 말그대로 일본의 라인족배타주의와 재침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령도정책, 재침야망열에 들뜬 군국주의후예들과의 《미례지향》을 운운하며 대일저자세를 취하고있으니 얼마나 한심한노릇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독사에게 손을 내밀면 독이발에 물릴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참혹할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독이발을 완전히 드러낸 군국주의독사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각성해야 한다는것을 시사하는 오늘이다.

주광일

한해가 다 저무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2021년 말발전군주요지회관회의》도 그 연장이다.

거기에서는 다음해의 국방태세확립, 《한미동맹》발전 및 국방협력강화, 《국방개혁 2.0》추진 및 미래국방력량구축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은 한해 접어들었던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엄중한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대결적용이며 다음해에도 여전히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지속시키려는 위협천만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하는 공중기만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군원이 무엇이고 그 발원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앞에서는 그 무슨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친분학적역수의 형세를 퍼부으며 평화와 인연이 너무도 먼 천당무장장비구축과 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얼마전에 현직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공군기지에 신형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설치한것도 단적인 실례이다.

그 무슨 《동맹》이라는 너울속에서 벌어지는 외세와의 야합문제로 그러하다.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온 겨레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군부호전세력은 외세와의 침략전쟁준비를 벌려놓는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조선반도에 새로운 전쟁불기름을 몰아올 작전계획수정보충논의까지 벌려왔다.

《미국이 필요하면 전쟁연습도 하고 세계최대의 미군기지까지도 지어준다. 조국강토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직한 동맹인가.》

남조선민심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군부호전세력이 《동맹》타령을 외우는것은 미국의 전쟁수인노릇을 계속하려는, 남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외세의 전초기지, 발전기지로 영원히 삼켜버리려는 사대노예적근성과 동족대결본성의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민족만이 아닌 인류의 지향이며 대세로 되고있다.

년말까지 이어지는 동족대결, 전쟁대결의 모의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는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동맹에 날아드는 부나비를 보고 용감하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무모하다고 한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 죽기때문이다.

본기자 김광혁



반미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모략에 이끌리 난 사이비언론들

최근 남조선에서는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야기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등 북남관계에 엄중한 해악을 끼쳐 온 보수언론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보수세력의 지휘조종밑에 동족을 핍박는 선전물들을 대량생산해내군 하였다.

특히 보수매물지들은 이미 전부터 파썸독재권력의 시녀, 동족대결의 나팔수로 전락되어 붓의 끝을 버리고 외국의 력사를 기록해왔다.

2015년말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이 《남남갈등을 부

추기고있다.》는 모략보도까지 류포시키고 박근혜헌책사태를 《중복》의 모자를 쓴 《조복세력의 판도》으로 몰아간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하면 《비국적인 인권상행》, 《기아》, 《열악한 인권실태》 등 외세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불어대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모략나팔도 그대로 받아먹고 사람들의 눈귀가 어지럽게 불어대기도 하였다.

얼마전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살값이 폭동한것은 정부복 북에 쌀을 보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북에 보낼 마스크를 대량생산하고있다.》는 등의 류언비어를 만들어 류포하였었다.

《동아일보》)패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기자회견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적대언론들은 유가부수를 조작해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도둑질한것도 모자라 대선정국에 가짜뉴스, 허위조작날조기사로 유권자의 판단을 외곡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조중동》패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역행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보수언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자주와 정의에 대한 란폭한 란압이며 무분별한 폭거가 아닐수 없다.

본기자 류현철

알려진것처럼 《대진련》소속 대학생들의 투쟁은 남조선을 타고왔아 불법무도한 온갖 범죄를 다 감행하면서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미국의

은 《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대행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 일본의 독도강탈야망반대투쟁,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결성을

대결이 《적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가 《미군유지비인상을 강박한 외세에게는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항의할 시위는 범죄로 몰아붙이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요구와 자존심마저 가두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한것이다.

자주와 정의를 《위법》으로 매도하는 《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적 망령을 력사의 무덤에 한시바삐 처넣어야 한다는 남녘민심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것이다.

본기자 안권일



남조선에서 올해를 특징짓는 4자성으로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살았다는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4자성이 선정된것은 정치권과 사회일반에서 《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리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불공정과 불평등을 더욱 조장시키는 남조선의 현실태를 반영하였기때문이라고

부패사회에 대한 민심의 평가

다들 수 있다.

대장동개발특혜의혹만 보아도 그 사건에 얽힌 인물들이 다 드러나지 않은것으로 하여 여야당사이에 특검론의가 쟁점으로 되고 《대선》판을 달구는 요인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살았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1%의 권력자들과 있는자, 가진자들만이 살판치고 99%의 서민들은 불행과 고통을 속명으로 여겨야 하는 남조선사회의 구조적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적라라한 비평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묘서동처》 다음으로 선정된것이 사람과 말이 다 지치고 피곤하다는 의미의 《인

본기자 한일혁

남조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당들사이의 치고받기가 격화되면서 정국이 점점 더 수라장이 되여간다고 한다.

현재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은 《민심잡기》를 위해 지방순회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감담회, 선심성공작 람방, 시장나눔을 등 저마다 자기 몸값을 부쩍 올리기 위해 입과 발이 분주한 속에 여야당은 그들대로 상대편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의 도수도 높이고있는중이다.

대표적인것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도입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특검을 주장하고있다.

간단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추천권을 틀어쥐고 단시일내에 끝내자는것이기에 《국민의힘》은 수사인원, 수사기간을 늘리자는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돈만은 사할수》(국민의힘)인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특검추천권을 주거나 공기를풀처럼 다루겠다는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받을수 없는 제안으로 시간갈기》한다고 대꾸질이다.

참거나 방개나 모로 기기는 마관가지라고 둘 다 저들이 주도권을 쥐자는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은 계속하면서 람당은 정작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한무하는 말잔치에 국민이 먹을 음식이 없는셈》이라고 싸짖아 비난한다.

윤석열의 부정부패문제도 여전히 치고받기에 맞는 《공》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장모가 부패혐의로 실형을 받은데다 처의 리력기만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것들은 변호를 하느라 급급하다나니 도적이 도적을 알아보고 가재와 게는 한편이라는 속도 먹는다.

어느 한 정치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폐기물을 실은 배》로 비유하며 《70년 적폐덩어리 친일잔재가 남아있는 곳에서 대장노릇하다가 권력을 탐하며 출몰했다.》, 《부패고철을 한가득 실은 그 배는 반드시 뒤집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에서 민생은 여전히 고달프다.

희생의 가마는 나락에 묻히고있는데 정객들은 리속문제도 전류풍속의 개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그들이 빈말로나마 운운하던 《민생, 공경, 정의》라는데도 진흙탕속에 묻히지 오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본기자 전명진

망언후보, 무능후보에 대한 분노의 표시

—남조선대 학생들의 대자보게시투쟁 활발—

《안녕하십니까》

사람들 호상간에 만났을 때 흔히 레와와 존경의 표시로 하는 이 인사말이 한때 남조선에서는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악행을 풍자, 비판하는 대자보의 제목으로 유명했었다.

《살기 힘든데 안녕하십니까.》, 《《중복》으로 탄압당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등록금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세월》호참사와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때에도 이 말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웠었다.

요즘 남조선의 대학들에서 벌어지고있는 대자보게시내용은 제 처지도 모르고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고 물뚱뚱벌뚱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한것이라고 한다.

《1일1망언》으로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는 무능아, 살인악당인 군부독재자를 비호 두둔하며 독재를 망상하는 악한, 본인, 가족, 친척, 수하들등 안판하여 한때 남조선에서는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악행을 풍자, 비판하는 대자보의 제목으로 유명했었다.

그것이 그대로 대자보게시투쟁으로 표출된것이다.

지난 11월 한달만 보아도 전두환을 옹호하는 망언과 《개사과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이 지역 대학들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대자보들이 게시되고 있다.

광주 조선대학교 교내에 게시된 《윤석열은 광주에 오지 말고 사퇴부터 하십시오》는 제목의 대자보도 그 하나이다.

《군부독재를 찬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윤석열이 2020년 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의이다.》, 《이런것은 대선 후보자격도 없고 광주를 방문해 거짓것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 《사과라고 사퇴부터 하라.》

대자보의 내용 하나하나가 윤석열에 대한 규탄이 력력하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대학생들은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대통령후보란 사람이 망



단 평

얼굴 팔기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는 것거리냐.》

참가자들이 격분을 터뜨려 두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난 윤석열, 생중계를 위해 동행했던 보수언론매체도 아연하여 그 동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한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살리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하던데 윤석열이 돌아치며 하는 꼴이란 이렇게 얼굴팔기뿐이다.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 민심을 알수 없을것이고 민심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의 희망을 살리고 삶을 보듬어줄수 있겠는가.

그런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있으니 얼마나 황당한다.

한복순